



# 東海電力의

## 設立에 즈음하여

東海電力開發株式會社 申 鉉 鎬  
社 長

### 1. 序 言

先進諸國에서는 70年代가 되면 生活革命이 온다. 識者들은 豫言하고 있다.

집마다 技術의 發展과 量産으로 超小型화된 家庭用電子計算機가 장치되 있어 손쉽게 電氣를 누르기만 하면 稅金의 計算도 해줄 뿐아니하고 家計의 收支「발란스」에서 심지어 子女들의 學費까지도 檢算해 준다는 것이다. 會合의 約束이나 生活의 「메모」같은 것도 電子計算機는 날마다 音聲이나 文字로 알려준다. 日用品을 사들일 때나 쓸 때마다 記憶시켜 두면, 집안의 消耗品이나 在庫물이나 購入時期, 適切한 購入數量, 價까지 알려준다.

主婦들의 어지간한 家事에 대한 의논에는 언뜻 언뜻 응해주므로 電力計算機가 집안에서 發揮할 才能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 된다. 家計簿같은 것은 아예 필요가 없어진다.

「서비스·모니터」라는 裝置도 있어, 家屋内の 電氣, 電力裝置나 器具의 回路에 故障이라도 생길 때 警報를 울리고 故障場所를 알려주고, 同時에 電源을 끊어 自動적으로 故障修理「서비스」會社에 電話를 걸어준다. 火災가 發生하거나 「가스가 새면」 「모니터」가 監視하고 있다가 事故를 處理해 준다.

居室의 壁面에는 畫面이 50 내지 90「인치」나 되어 두께는 1「인치」밖에 안되는 얇은 「칼텔레비전」이 박혀 있다. 모든 裝置가 遠隔操作이 可能하여 앉아서 보는데 지치면 「텔레비

전」의 「스크린」을 天井에 달아놓을 수도 있다. 室內는 自動換氣裝置 때문에 언제나 爽快하다.

電子頭腦와 電子눈과 觸角을 가진 掃除器는 自動으로 온집안을 기어 다니므로 집안은 먼지 하나 없다.

物質的 幸福과 福祉를 바라는 人間의 꿈이 電氣線을 타고 이뤄진다는 것을 위의 얘기는 사무치게 느끼게 해준다.

### 2. 우리나라의 電力事情

이 아쉽고 소중한 電力에 대해 去年 12월22일 字의 한 日刊紙는 『成長의 暗礁—電力』이란 卮言한 題目 아래 실은 글의 含蓄은 이러하다.

『電力은 國內外에서 성공적이었다는 讚辭를 받은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果에 最大의 汚點을 찍어 놓았다. 成果에 汚點을 찍는데 그치지 않고 電力의 不足은 高度成長의 70年代를 향한 第2次 5個年計劃이 出帆하자마자 暗礁에 부딪치게 했다.

64년4월1일을 期해 解放 以後 계속되던 制限送電은 철폐되고 마침내 無制限送電을 斷行한 記憶이 아직도 새롭는데 다시 制限送電이 되살아나야 했고 그에 따라 電源開發計劃은 실패없이 擴大修正돼야 했으며 生産業界는 電力難에 부딪쳐 高度成長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남아도는 需要를 걱정하고 販賣를 권장하던 電力이 節電으로 뒤바뀌게 됐다…….』

事物의 明暗은 언제나 表裏가 一致돼 있는 법이니라. 電力需給의 被縱의 直接的인 原因을 이

론, 66년의 22.1%, 67년 前半期の 35.5%라는 세계에 類例없는 驚異的인 需要成長率이, 곧 政府의 經濟開發을 위한 즐기찬 노력에 따라 이뤄진 國內産業의 急速한發展과 一般市民의 生活電化가 크게 促進된 結果라고 볼 때, 工業化를 指向한 産業構造의 改善을 위해 차라리 慶賀해 맞이 않아야 할지도 모른다.

第3共和國이 樹立되자 政府는 ① 電氣會社 3社의 統合과 電力增強, ② 農漁村電化事業, ③ 電氣行政의 制度確立이란 果敢한 政策을 推進해 나갔고, 唯一한 國營企業體가 된 韓國電力株式會社가 66년까지에 完遂한 第1次電源開發計劃은 그런대로 눈부신 바가 있어, 建設된 發電施設은 火力 8個處와 水力 2個處, 都合 40萬2千kw (水力 7萬2千kw, 火力 32萬6千kw, 島嶼 4千kw)의 電源을 開發해 놓았다. 61년의 人口 1人當 電力消費量 48.0KWH가 66년에는 103.3KWH로 불었고, 住宅電化率은 61년의 20.1%에서 66년에는 30%로 늘어났다.

統計資料의 不備, 時間的制約, 財源確保面의 難關을 무릅쓰고 韓電이 所期の 目標을 達成해 내고, 將次 第2, 第3次 長期計劃遂行을 위한 土堅을 이룩해 낸 業績은 높이 評價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第2次經濟開發計劃에 의한 2次産業의 急進的인 成長은 電力開發을 엄청나게 앞질러 破綻을 가져왔다는 것은 前記한대로다. 韓電이 다시 樹立着手한 第2次電源開發 5個年計劃(67—71)은 最終年度에 2百31萬4千kw의 最大需要에 對備하여 施設容量 2百4萬6千kw의 新規發電所의 建設로써 最大可能出力 2百76萬5千kw를 確保하려는 龐大한 目標을 두고 있는데, 需給實績의 急激한 成長으로 數次나 修正되었고, 또 計劃事業의 大部分이 67—68兩년에 걸쳐 集中的으로 着手됨으로써 類例없는 工事量의 輻輳가 韓電을 숨가쁘게 壓迫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한편 계속되는 韓電의 電源開發에도 불구하고 需要를 充足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設備의 老朽, 降雨量의 不足, 工期의 遲延등 原因으로 말미암아 電力需給計劃에 蹉跌이 나서, 産業의

原動力인 電力이 經濟의 成長을 先導하는 正常狀態를 이룩하는데 失敗한 政府는 長期에 걸친 은건한 에너지 開發政策을 樹立하지 않고서는 第2次經濟開發計劃의 順坦한 遂行을 期하기가 어렵다고 내다 보고 67—76년에 이르는 電力開發10個年計劃을 樹立했다. 去年 11월13일 商工部가 발표한 이 計劃은 67年初의 最大電力需要 69萬6千kw에서 76年末 電力需要를 4百70萬3千kw를 想定, 이를 充足시킬 26個處(水力 6, 火力 18, 原子力 2)의 發電所와 送配電施設을 開發, 擴充하려는 劃期的인 것이다. 76年末의 發電施設容量은 5百53萬5千kw로서 67년의 近 7배나 되며 電力需要成長率을 67—71년은 27.2%, 72—76년은 15.2%로 잡고 있다. 水火力施設容量의 比率은 13% 對 87%로서 크게 火主水從의 電力構造로 바뀐다. 全國電化率을 80%로 잡아 先進國에 肉薄하려는 意정난 것인데, 이를 위해 政府는 電力開發政策을 變動하고, 마침내 民間資本의 發電施設에의 參與를 積極 勸獎하고 方針을 세워 一般産業界의 劃期的인 姿勢轉換을 促求하기에 이르렀다.

### 3. 民間資本의 社會間接資本擴充에서 參與

수많은 工場은 세워졌으나 工場을 돌릴 준비가 마련되지 못하여 輸出鈍化를 가져오고 있는 두가지 根本要因을 專門家 한분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로, 1次5個年計劃의 力點이 從來經濟成長의 隘路로 切感돼온 運輸, 通信, 動力, 港灣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基幹産業의 建設, 그리고 輸出振興에 놓였음에도 前者는 거의가 政府主導下에, 그리고 後者는 民間企業에 맡겨져 輸出만이 民間企業의 主된 投資機會로 限定됐는데, 65년 以來 韓日國交正常화와 때를 같이한 外資導入에 의한 各種 新規輸入代替産業이라는 보다 安全하고 有利한 投資機會가 爆發하게 됨을 契機로 輸出에 대한 投資機會가 相對的으로 그 魅力을 漸次喪失하게 된 것이 事實이다. 그 結果 安定된 外資導入「붐」을 탄 新規輸入代

産業建設의 새 投資機會에 集中된 반면, 그간 國內物價水準의 騰貴와 國民所得의 增大에 라 國內市場擴大로 製品의 國內供給比率을 増시켜, 絶對的輸出餘力の 縮少에 拍車를 加하 結果를 自招했고,

둘째로, 輸出與件 中에서도 特히 社會間接資의 建設이 現實的인 要求에 未達하게 되어 輸商品의 國際市場競爭力培養을 크게 沮害, 結 이 것은 輸出底力の 相對的 縮少를 招來하기 이르렀다.』

自由中國의 産業開發의 過程을 보더라도 그 階的 計劃은 아주 잘 짜여진 것이었다. 初期는 우선 勞動集約産業인 紡績業, 電氣機器工 등을 發展시켰고, 同時에 經濟作物의 獎勵로 工併進을 이룩하여 輸出競爭力의 底力을 培養 다음에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期해 動力과 送問題를 意慾的으로 解決해 놓았던 것이다.

다음에 精油, 製鐵, 시멘트工業을 擴張했고 者에는 輸出産業園地를 形成, 電子工業을 輸戰略産業으로 選定하여 日本을 凌駕할 目標래 그 開發에 努力하고 있다고 들린다.

東海電力設立趣旨書에 밝힌듯이 一般 産業界 『지금까지는 電氣는 政府가 計劃하는 것이, 國營企業體인 韓電이 發電供給하는 것이며, 業界에서는 安穩하게 받아쓰는 것으로만 알았, 需要者는 計劃의 不充分을 탓하고 建設의 延을 怨望할 뿐 自身의 積極的으로 解決을 위 努力에 參與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政府方針 적극 呼應하여 前記한 根本要因을 몸소 解決 자는데 必한 抱負와 使命感을 안고 나서게 된 이다.』

#### 4. 民間電氣事業體 東海電力

文獻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1898년 1 美國人 「콜브란」, 「보스트워」兩人이 舊韓國 政府로부터 電氣事業經營權을 獲得, 漢城電氣會 社를 設立하고, 1900년 4월 總發電力 2百kw를 確 立하여 單線軌道를 敷設하는 한편 鍾路에 電燈

을 點火했다고 돼 있다. 곧 京城市街의 民間點 火의 始初요 同時에 民間電力의 始初인 것이다.

70년 뒤인 去年 12월 22일 大電力需要家들인 洋灰工業을 爲始한 主要民間企業의 發起로 設立 된 民間電力會社인 東海電力開發株式會社는 우선 그 第1次建設計劃으로 漢城電氣의 總發電量 의 4千倍에 達하는 新銳火力單位機(施設容量 22 萬kw) 2基를 갖춘 油專燒·半屋外式發電所를 蔚山近郊에 建設하러 한다. 內資 30億원과 政府 保有弗 및 西獨借款 4千6百萬弗로 建設될 이 發電 所는 將次 第3, 第4號機를 갖추게 될 것인데, 1) 建設 工期가 짧고, 2) 建設單價가 低廉하며, 3) 良質의 電氣를 生産하여, 4) 系統의 安定과 供給信賴度를 增進시키는 反面, 5) 嶺東地區에 자리잡은 洋灰工業등 여러 重要産業에 電力을 早速히 供給할 수 있기 위해 第1號機의 竣工日 字를 69年末, 第2號機의 完工을 70년 3월로 잡고 줄기찬 突貫作業에 突入하러 한다.

본시 電氣事業은 公益事業인만큼 良質의 電氣 를 豊富히 그리고 값싸게 供給하는 것이 唯一한 「서비스」이며 責務이다.

#### 5. 結 語

일찌기 坊坊曲曲의 校舍에는 電氣가 없는 것 을 어린 가슴에 애태운 어린이들의 노래소리가 구슬뿔다.

애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가자.

장대 메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그 장대로 따서 망태에 넣은 달을 불이 없어 바느질을 못하는 순이 엄마 방에 달아주자는 애 끝은 사연이었다.

이제 東海電力은 마치고 장대메고 뒷동산으로 기어오르려는 어린이들 못지 않게 必한 使命感 을 안고 나서려 한다. 國民 여러분들과 政府要 路, 電業界 一般産業界의 格別하신 聲援과 指導 鞭達로 이 出發을 祝福해 주시기를 새삼 간청해 맞이 않는다.